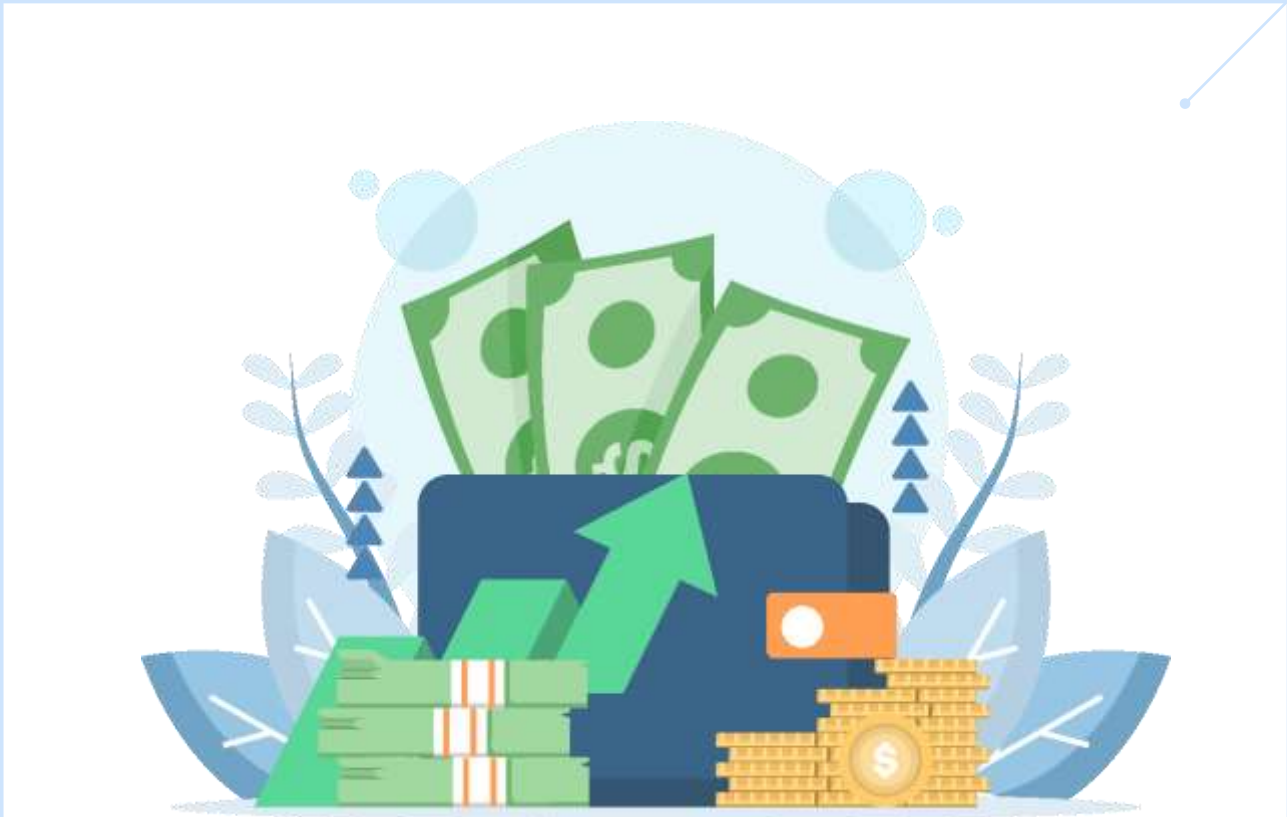
Fixed
Income
Market

2025. 11

글로벌채권팀

김지만 수석연구위원
jiman8.kim@samsung.com



2026 채권시장 전망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지만, 투자권유의 적합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라도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삼성증권

2026년 채권시장 전망: 기본을 보자

한국 채권시장: 당장은 Carry & Roll Down에 집중할 때

한국 경제는 '25년 1% 수준의 성장률에서 '26년 2.2% 성장률로 큰 폭의 개선이 예상된다. 인플레이션은 올해와 비슷한 2% 수준으로 예상하지만 물가 불안 요인이 잠재해있고, 부동산 시장 등 금융안정 여건을 점검해야 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추가 기준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 '26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현 수준 동결을 예상한다(현재 = '26년 말 2.5%).

'26년 국채발행은 232조원으로 '25년 계획 대비 34.4조원 많은 부담스러운 수준이다(1, 2차 추경 대비 + 2조원). 그럼에도 한국 국채시장이 WGBI에 편입되고 '26년 4~11월 중 일본 GPIF 자금 총 16조원을 포함해 80조원($2.5tn x 한국 편입 비중 2.2% = $55bn)에 이르는 막대한 패시브 자금이 유입된다는 점은 수급상 큰 호재로 볼 수 있다.

현재 채권금리는 이미 기준금리 인하기 종료를 Pricing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략적으로 당장은 금리 변동성 위험이 큰 장기채에 대한 방향성 베팅보다 5년 이하 영역 Carry & Roll-down에 집중하는 것이 위험대비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할 것이라 판단한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현재 2.50% → '26년 말 2.50%
- 국고채 3년 2.70~3.20%, 국고채 10년 2.90~3.60%
- 국고채 3/10년 spread: 30~45bp, 국고채 10/30년 spread: -10~10bp

미국 채권시장: Term premium 정상화로 가는 길

2025년 하반기 Fed의 non-recessionary easing cycle이 재개되었다. 2026년은 미국 경제가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중립금리 수준에 좀 더 근접한 수준으로 기준금리 정상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Fed기준금리는 2026년 상반기 말 3.2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문제는 시장이 기대하는 수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수익률곡선은 2년 구간까지 역전 폭을 확대하며, 금리인하 기대를 상당 폭 선반영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장기물의 고점도 일정수준 낮아지는 흐름을 예상할 수 있지만 기준금리 대비 미 국채 10년물 스프레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Fed의 금리인하 기조가 이어지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 재정에 대한 우려는 계속될 것이란 측면에서 텀 프리미엄(Term premium)은 정상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 기준금리: '25년 말 3.75% → '26년 6월 말 3.25%이후 연말까지 동결
- 미국 국채: 2년물 3.00~3.80%, 10년물 3.70~4.40%
- 미국 2/10년 spread: 40~100bp, 미국 10/30년 spread: 50~80bp

이벤트 일정 및 금리 전망 테이블

[주요 이벤트 & 일정]

2026 1Q
- 금통위 (1/15, 2/26)
- FOMC (1/28, 3/18)

2026 2Q
- 금통위 (4/10, 5/28)
- FOMC (4/29, 6/17)
- 이창용 총재 임기(~4월)
- 파월 Fed의장 임기(~5월)

2026 3Q
- 금통위 (7/16, 8/27)
- FOMC (7/29, 9/16)
- 잭슨홀 미팅 (8월 말)
- 정부 예산안 (9월)

2026 4Q
- 금통위 (10/22, 11/26)
- FOMC (10/28, 12/9)
- 27년 국채발행계획 (12월)

금리 전망 테이블

(%)	25.12월 말	26.3월 말	26.6월 말	26.9월 말	26.12월 말
한국 기준금리	2.50	2.50	2.50	2.50	2.50
한국 국채 3년	2.95	2.90	2.85	2.80	2.80
한국 국채 10년	3.30	3.20	3.15	2.90	2.90
한국 국채 30년	3.23	3.15	3.10	3.00	3.00
미국 기준금리 (upper)	3.75	3.50	3.25	3.25	3.25
미국 국채 2년	3.60	3.55	3.50	3.45	3.40
미국 국채 10년	4.10	4.08	4.05	4.03	4.00
미국 국채 30년	4.70	4.68	4.65	4.63	4.60

자료: 삼성증권

PART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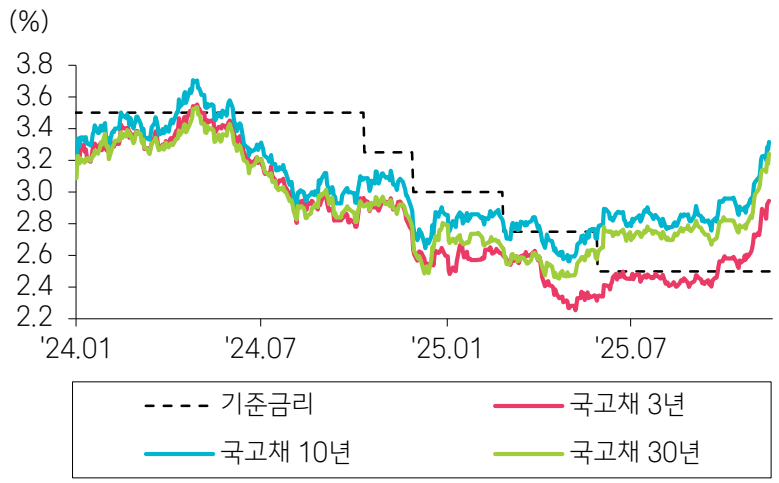
한국 채권시장

채권시장 동향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기대 후퇴하면서 채권금리 상승폭 커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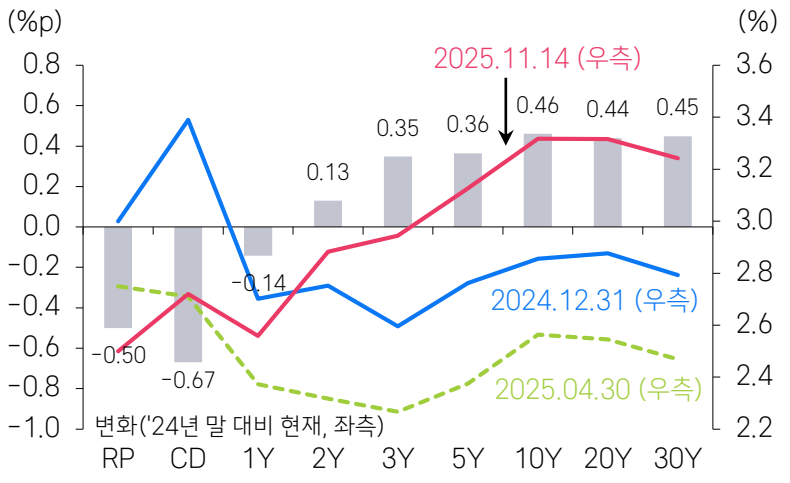
- 4월 말까지 채권금리는 성장률 둔화 및 기준금리 인하 전망을 반영하면서 하락세를 나타냈음
- 이후 2차례에 걸친 추경에 따른 국채발행 증가, 3분기 GDP 호조 및 기준금리 인하 기대 후퇴의 영향으로 채권금리 상승폭 커져

5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기준금리 동결, 채권금리는 점차 상승



자료: 금융투자협회, 삼성증권

수익률 곡선 변화: 4월까지 하락한 이후 점차 크게 상승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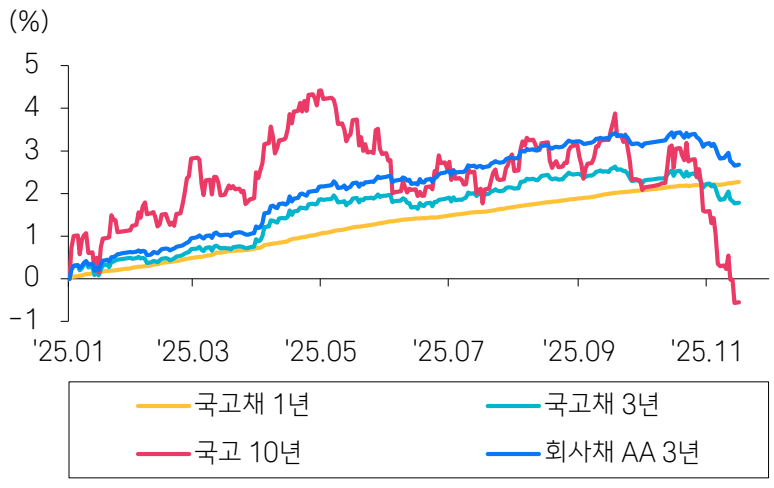
자료: KIS, 삼성증권

채권투자 성과 추이

4월까지는 장기채 위주로 높은 성과를 냈지만 이후 성과를 반납하며 부진한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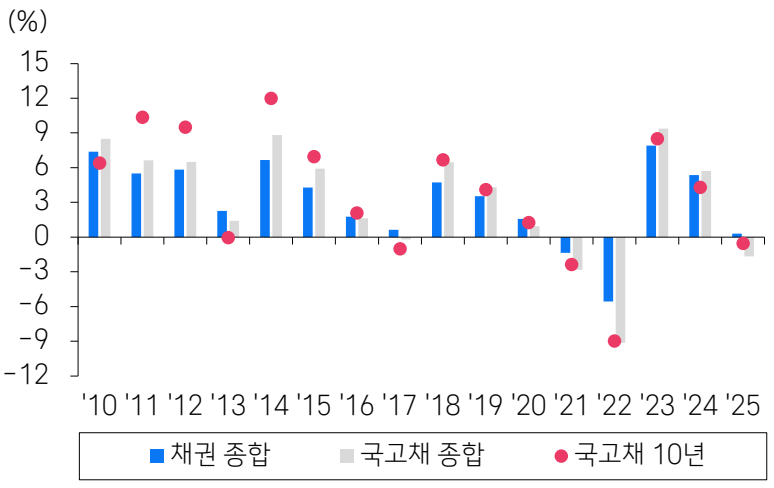
- 11/14일 기준 YTD성과: 채권 종합 0.3%, 국고채 종합 -1.7%, 국고채 1년 -3.2%, 국고채 3년 1.8%, 국고 10년 -0.5%, 회사채 AA 3년 2.7%
- [연도별 성과 변화] 채권 종합 '23년 7.9%→ '24년 5.4% → '25년 0.3%, 국고채 종합 '23년 9.4% → '24년 5.7% → '25년 -1.7%

채권별 투자성과 추이: 연초 성과를 반납하고 장기물 위주로 부진



자료: KIS, 삼성증권

연도별 채권 투자성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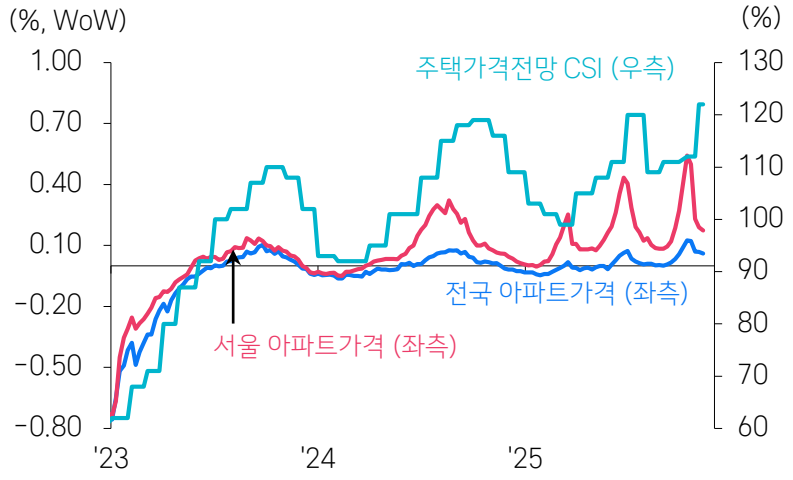
자료: KIS, 삼성증권

사실상 쉽지 않은 인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에 무게

기준금리 동결기조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25년 말, '26년 말 =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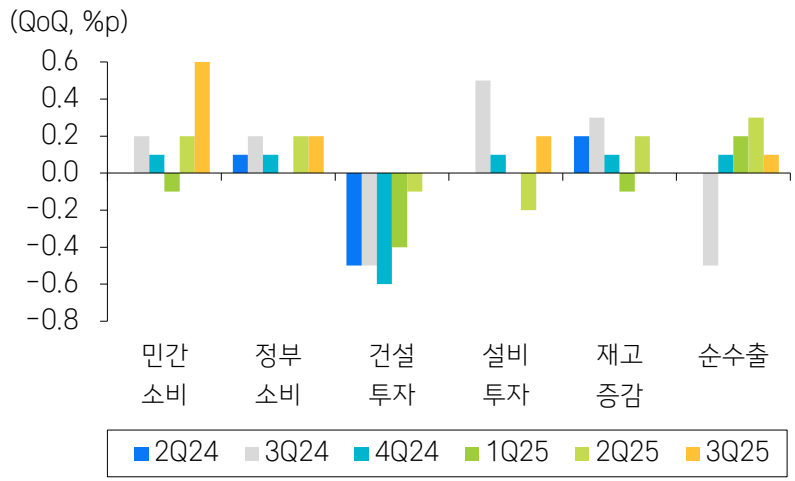
- 한국은행 주택가격전망CSI는 '21년 10월 이후 최고치 기록. 수도권 부동산 가격 강세,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여건을 더 살펴야 할 때
- 한편, 성장률 측면에서 금리인하의 필요성도 약화. 3Q GDP는 크게 개선(1.2%QoQ, 1.7% YoY), 당사 매크로팀은 '26년 전망을 2.2%로 상향

금융안정 여건, 더 살펴야 하는 상황



자료: 한국은행, 한국부동산원, 삼성증권

민간 소비 크게 개선되었고, 무역 합의에 따라 수출 불확실성도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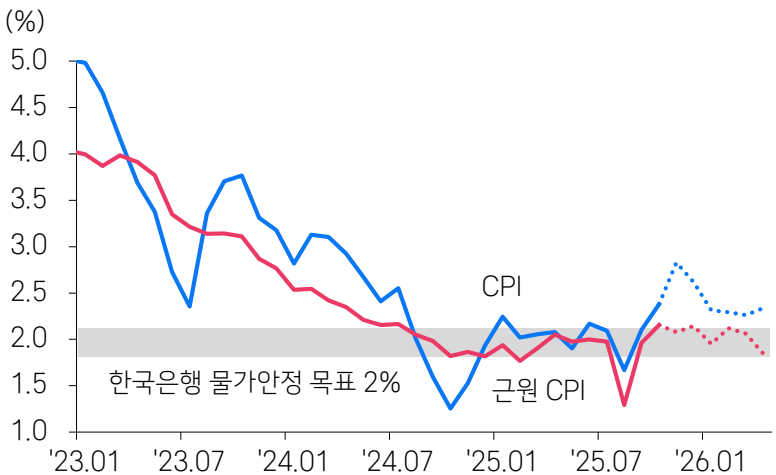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삼성증권

인플레이션, 한은 목표를 넘어 상승한 상황

최근 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 물가 목표를 소폭 이탈. 물가에 대한 관심이 다시 환기되는 여건

- 10월 소비자물가 2.4%YoY, 0.24%MoM, 통계청 근원 2.5%YoY, 0.25MoM, OECD 근원 2.2%YoY, 0.2MoM
- 올해 평균은 각각 0.22%, 0.22%, 0.20%MoM. 현 추세대로면 11월 CPI 2.8%, 12월 2.5%, '26년 1~4월 2.2~2.3% 수준(연간 2.2%, 2.2%, 2.0%)

한국 인플레이션 경로 및 향후 궤적



참고: 향후 경로는 올해 평균 수준의 전월비 적용한 경로
자료: 한국은행, 한국부동산원, 삼성증권

품목성질별 등락률 및 기여도

	품목수	가중치	기여도 MoM	기여도 YoY
총지수	458	1,000	0.31	2.38
상품	310	448	0.07	1.02
농축수산물	78	76	0.01	0.24
공업제품	228	338	0.06	0.79
전기·가스·수도	4	34	0.00	0.01
서비스	148	552	0.24	1.36
집세	2	99	0.01	0.08
공공서비스	30	120	-0.01	0.14
개인서비스	116	333	0.23	1.12
총지수	458	1,000	0.31	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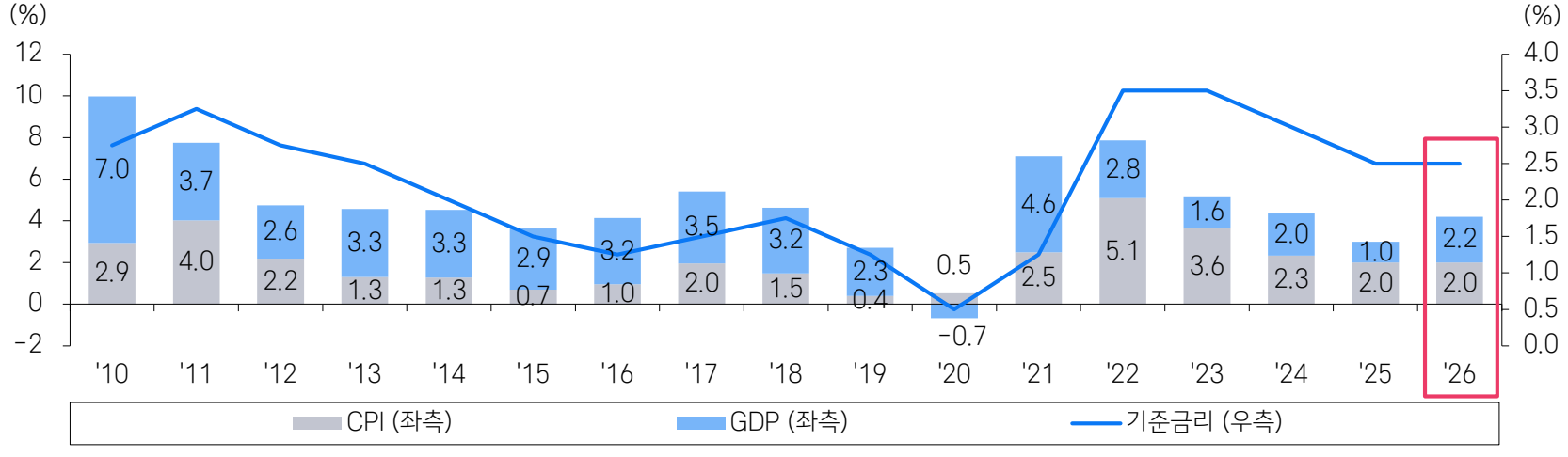
참고: '25.10월 기준, 2020=100, %, %p
자료: 통계청, 삼성증권

한국 경제 turn around, 인하기조가 장기간 이어진 '12~'16년과 다른 국면

'12~'16년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하기와는 인플레이션 상황이 현격하게 다른 상황이며, 성장률도 상승 반전하는 상황

- GDP성장률은 '24년 2.0%→'25년 1.0%→'26년 2.2%로 예년 수준 회복을 예상하며 상방 리스크도 열려 있는 상황
- CPI 상승률은 '24년 2.3%→'25년 2.0%→'26년 2.0%로 예상하지만, 최근의 물가 흐름은 경계감을 높이고 있음

'12~'16년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하기와 현격하게 다른 물가여건, 성장률도 상승 반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삼성증권

FTSE, 한국의 WGBI 편입 재확인

FTSE는 한국 시장 접근성 레벨 2로 상향하며, WGBI 편입을 결정(2024.10월), 이후 '25년 10월에도 한국의 WGBI 편입 재확인

	WGBI			WGBI + South Korea			WGBI ex Japan + South Korea			WGBI ex Japan ex China + South Korea		
	Count	Market Value	MV%	Count	Market Value	MV%	Count	Market Value*	MV%	Count	Market Value	MV%
United States	289	13916.2	41.75	289	13916.2	40.88	289	13916.2	45.04	289	13916.2	50.66
Japan	275	3141.8	9.43	275	3141.8	9.23						
China	85	3427.3	10.28	85	3427.3	10.07	85	3427.3	11.09			
France	51	2207.2	6.62	51	2207.2	6.48	51	2207.2	7.14	51	2207.2	8.03
Italy	93	2054.6	6.16	93	2054.6	6.04	93	2054.6	6.65	93	2054.6	7.48
Germany	66	1758.5	5.28	66	1758.5	5.17	66	1758.5	5.69	66	1758.5	6.40
United Kingdom	63	1725.4	5.18	63	1725.4	5.07	63	1725.4	5.58	63	1725.4	6.28
Spain	51	1345.2	4.04	51	1345.2	3.95	51	1345.2	4.35	51	1345.2	4.90
South Korea				64	708.4	2.08	64	708.4	2.29	64	708.4	2.58
Canada	41	599.3	1.80	41	599.3	1.76	41	599.3	1.94	41	599.3	2.18
Belgium	34	461.1	1.38	34	461.1	1.35	34	461.1	1.49	34	461.1	1.68
Netherlands	23	383.6	1.15	23	383.6	1.13	23	383.6	1.24	23	383.6	1.40
Australia	27	374.3	1.12	27	374.3	1.10	27	374.3	1.21	27	374.3	1.36
Austria	31	343.8	1.03	31	343.8	1.01	31	343.8	1.11	31	343.8	1.25
Mexico	16	256.8	0.77	16	256.8	0.75	16	256.8	0.83	16	256.8	0.93
Portugal	20	181.9	0.55	20	181.9	0.53	20	181.9	0.59	20	181.9	0.66
Poland	17	210.6	0.63	17	210.6	0.62	17	210.6	0.68	17	210.6	0.77
Malaysia	30	154.3	0.46	30	154.3	0.45	30	154.3	0.50	30	154.3	0.56
Finland	25	155.7	0.47	25	155.7	0.46	25	155.7	0.50	25	155.7	0.57
Ireland	17	129.5	0.39	17	129.5	0.38	17	129.5	0.42	17	129.5	0.47
Singapore	23	122.4	0.37	23	122.4	0.36	23	122.4	0.40	23	122.4	0.45
Israel	13	115.6	0.35	13	115.6	0.34	13	115.6	0.37	13	115.6	0.42
New Zealand	14	89.3	0.27	14	89.3	0.26	14	89.3	0.29	14	89.3	0.33
Denmark	8	68.3	0.21	8	68.3	0.20	8	68.3	0.22	8	68.3	0.25
Sweden	8	57.6	0.17	8	57.6	0.17	8	57.6	0.19	8	57.6	0.21
Norway	11	50.6	0.15	11	50.6	0.15	11	50.6	0.16	11	50.6	0.18
Total	1,331	33331.3	100.00	1,395	34039.6	100.00	1,120	30897.8	100.00	1,035	27470.5	100.00

자료: FTSE Classification of Fixed Income Markets – FTSE Fixed Income Country Classification September 2025 Results Announcement Published: 07 October 2025

한국의 WGBI 편입과 관련한 궁금증

한국 국채시장 편입에 대한 저항은 없을까?

- '21년 일본 기관투자자는 중국의 WGBI 편입을 반대한 바 있음. 대표적으로 GPIF(일본공적연금)는 중국의 WGBI 편입 이후에도 중국 국채 편입을 배제
- 일본 투자자들이 제기한 주된 문제(자본 통제, 유동성 부족 등)는 한국 국채시장에는 해당되지 않는 부분
- 현재까지 한국 국채시장 편입과 관련하여, 반대 목소리를 다룬 기사는 없는 상황

중국의 WGBI 편입을 일본 기관 투자자들이 반대한다는 보도(2021년)

FTSE Russell faces Japanese resistance on plan to include China in bond index

FTSE Russell이 2021년 10월부터 중국 국채를 WGBI에 편입하겠다고 발표한 후, 세계 최대 연기금인 GPIF를 포함한 일본 기관 투자자들이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보도

일본 투자자들이 제기한 주된 우려는
자본 통제(capital controls) 문제, 결제(settlement)의 어려움, 낮은 유동성(low liquidity) 등 기술적인 측면(technical aspects).

자료: Reuters, 2021.01.15

GPIF는 중국의 WGBI 편입 이후에도 이를 배제한다는 보도(2021년)

Japan's GPIF to shun Chinese govt bonds even after benchmark inclusion

FTSE의 중국 편입(10월)이 임박한 시점, GPIF(일본공적연금)는 WGBI 벤치마크를 사용하되 중국 국채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공식 결정했음을 확인한 기사

GPIF가 밝힌 3가지 공식 사유:
1) 중국 국채는 다른 주요 국채처럼 국제 결제 시스템(ICSD 등)에서 결제 불가
2) GPIF의 투자 규모에 비해 시장의 유동성이 여전히 제한적
3)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Futures) 거래 비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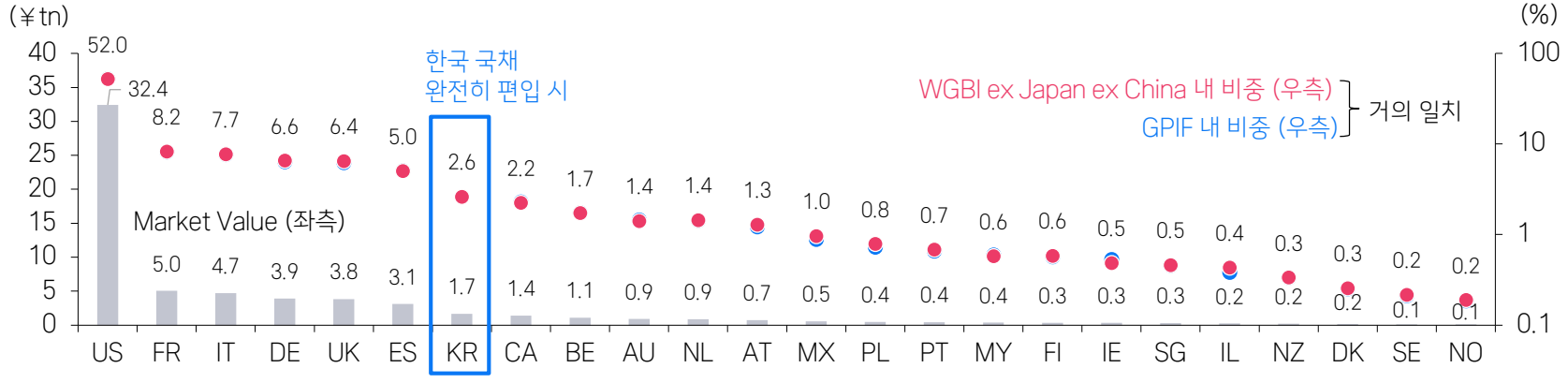
자료: Reuters, 2021.9.21

WGBI 추종 자금은 어디서 얼마나 유입될까?

'26년 4~11월 중 80조원의 패시브 자금 유입

- WGBI 추종자금 $2.5tn x 한국 편입 비중 2.2% = $55bn (현재 환율 기준 약 80조원이 '26년 4~11월 중 유입)
- 참고로 GPIF(일본공적연금)는 총 ￥62.66tn 해외채권 보유 중이며 그 중 ￥61.61tn이 WGBI ex Japan ex China를 그대로 추종
- GPIF 해외 국채 자산 내 2.6%로 계산하면 1.66조엔 (= 원화 환산 16조원 수준 유입 예상)

GPIF의 해외 국채 투자는 WGBI ex Japan ex China와 거의 일치



United States – US, France – FR, Italy – IT, Germany – DE, United Kingdom – GB, Spain – ES, Canada – CA, Belgium – BE, Australia – AU, Netherlands – NL, Austria – AT, Mexico – MX, Poland – PL, Portugal – PT, Malaysia – MY, Finland – FI, Ireland – IE, Singapore – SG, Israel – IL, New Zealand – NZ, Denmark – DK, Sweden – SE, Norway – 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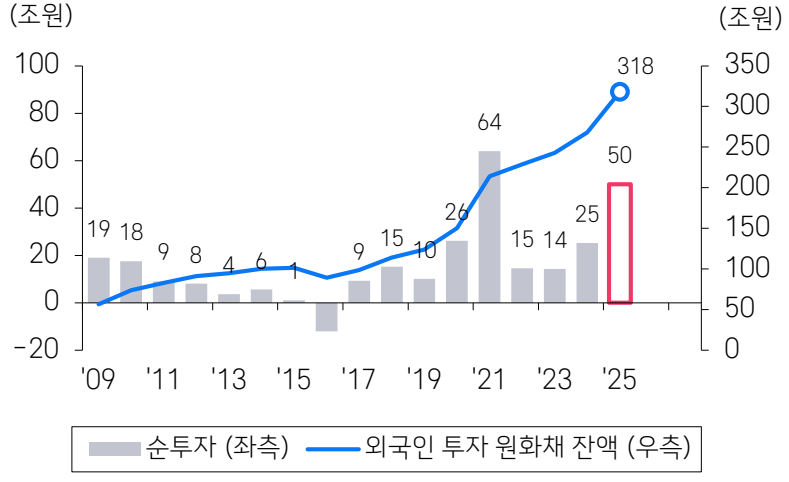
자료: GPIF「Portfolio holdings by asset category as of Mar 31, 2025」, 삼성증권

외국인 및 개인투자자 채권 수요 변화

외국인의 원화채 대규모 투자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 개인투자자의 채권투자는 둔화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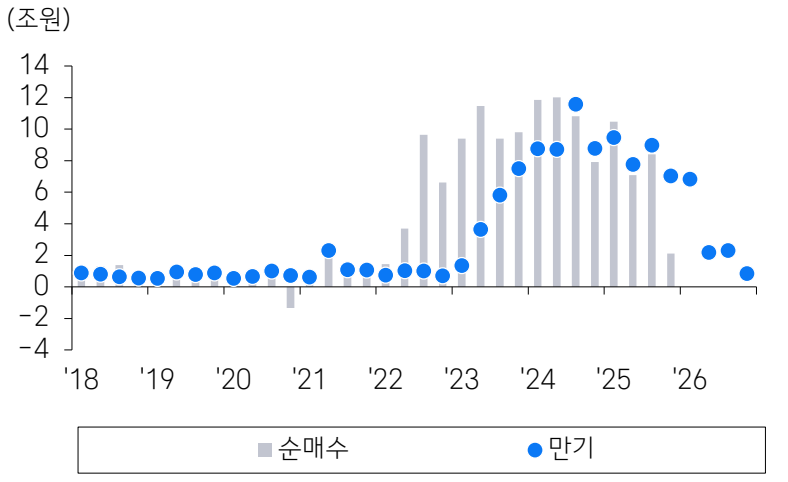
- 외국인 순투자가 올해 50조 증가하면서 318조원 수준으로 투자잔액 증가(이는 2021년에 이어 역대 두번째 많은 규모)
- 개인투자자의 채권투자는 '22년부터 크게 증가했으나 올해 들어서는 점차 투자금액 하락세

외국인 순투자 올해 50조 증가, 내년에는 WGBI 자금이 큰 폭 유입



참고: '25년은 11월 13일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삼성증권

개인투자자의 국내 채권투자, 정점을 지나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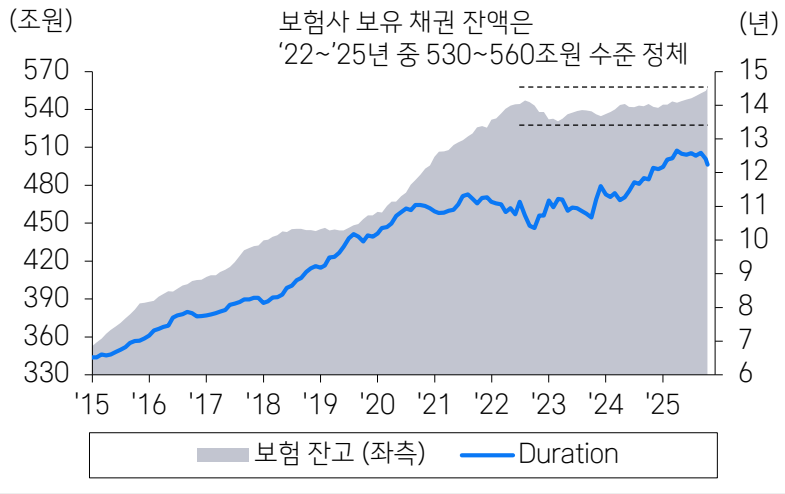
참고: 분기별 순매수
자료: 인포맥스, 삼성증권

보험사의 채권 수요 변화

보험사는 초장기채 금리를 낮게 유지시킨 배경. 그러나 보험사 규제 완화로 기조 변화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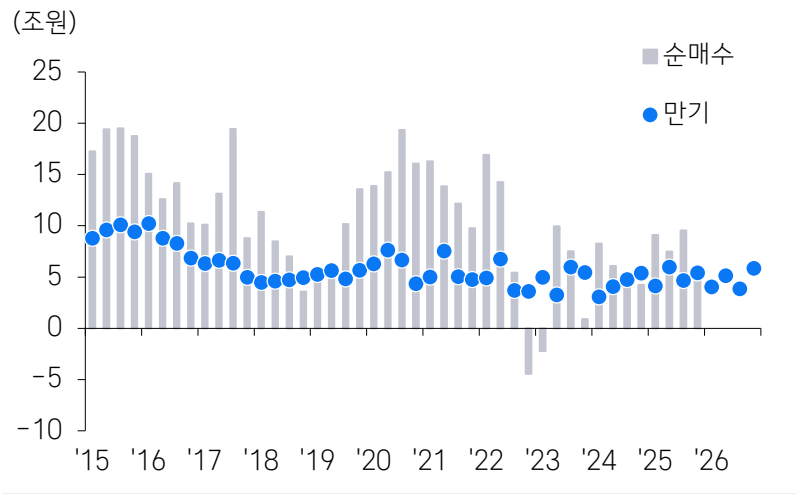
- 금융당국은 보험사 최종관찰만기를 30년까지 장기화하는 계획을 기존보다 8년 늦췄음(10/19일)
- (기존 계획) '24년 20년 → '25년 23년 → '26년 26년 → '27년 30년으로 확대
  (재조정 결과) 2027년까지 현행 23년 → 2028~2029년에는 24년 → 이후 매년 1년씩 확대해 2035년에 30년 적용하기로 함

보험사 보유 채권 잔액은 정체된 가운데 듀레이션만 장기화



참고: 분기별 순매수
자료: 인포맥스, 삼성증권

보험사, 순매수 규모는 둔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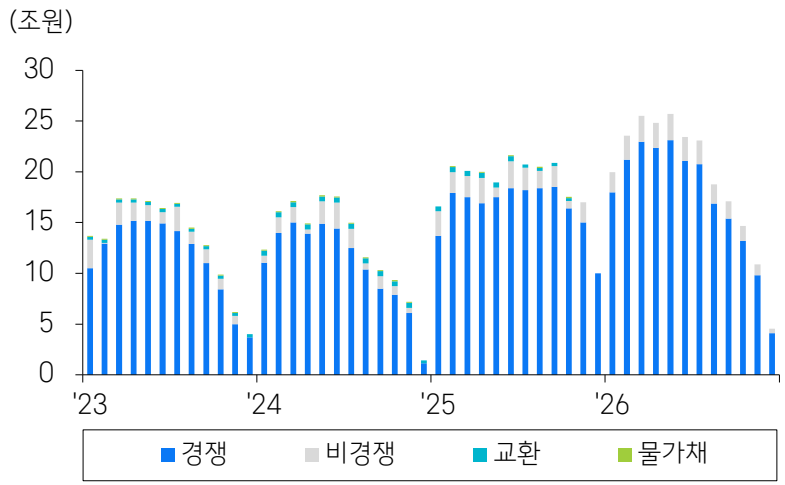
참고: 분기별 순매수
자료: 인포맥스, 삼성증권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 국채 발행량 증가 부담

'26년 국채발행은 232조원으로 예상되며, 상반기 이후 추경 불확실성도 감안해야 할 것

- 정부는 예산안에서 '26년 총지출 728조원('25년 본예산 대비 8.1% 증가, 두 차례 추경을 고려한 총지출 보다도 3.6% 증가), 총수입 674.2조원 발표
- '26년 국채발행은 232조원이며, 연물별 발행 등 세부계획은 12월 발표될 예정 - 연물별 발행비중에 주목해 봐야 할 것임

월별 국채발행 추이 및 예상궤적



자료: 기획재정부, 삼성증권
※ '26년 국채발행은 '25년 계획 대비 +34.4조원(2차례 추경 대비 +2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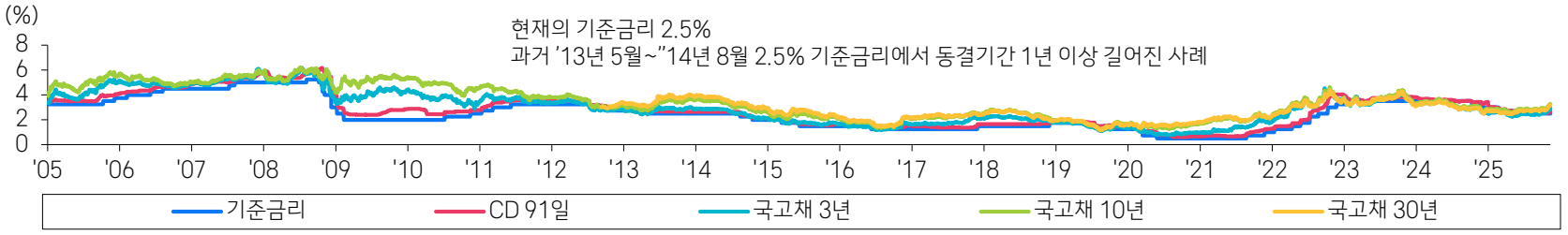
2026년 재정운용, 확장 재정 기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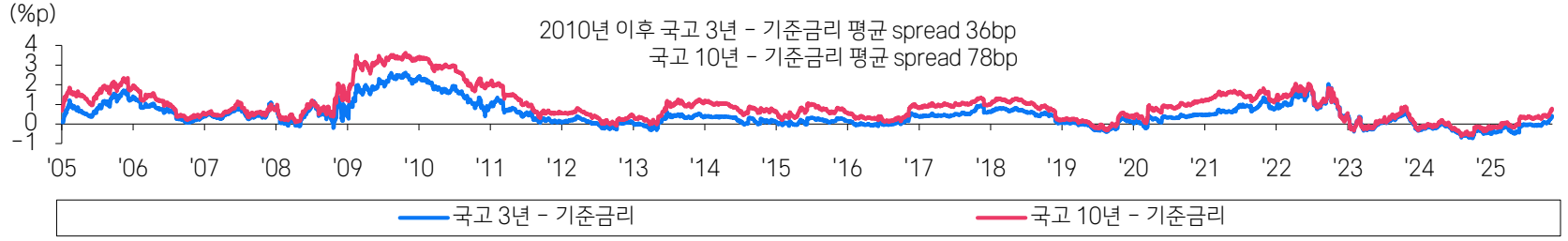
구분	'25년 본예산(A)	'25년 2회 추경	'26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가율 (%)
총수입	651.6	642.4	674.2	22.6	3.5
국세수입	382.4	372.1	390.2	7.8	2
세외수입	269.1	270.3	283.9	14.8	5.5
총지출	673.3	703.3	728	54.7	8.1
예산	447.4	467.3	481.5	34.1	7.6
기금	225.9	235.9	246.5	20.6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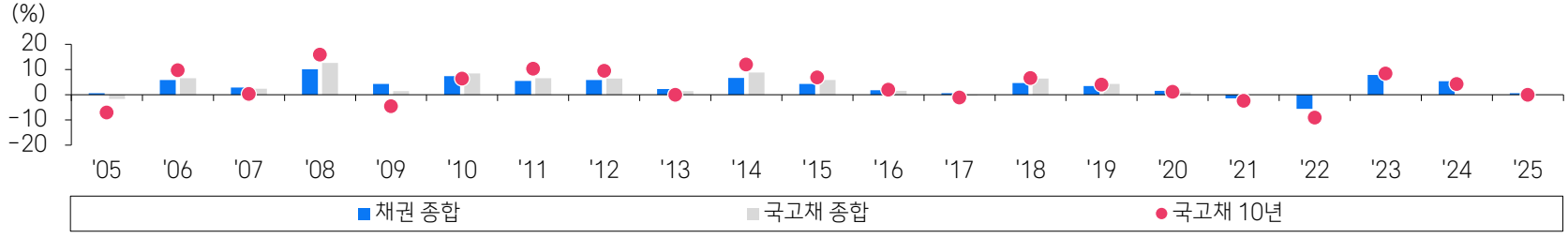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삼성증권

금리 상황에 대한 판단

주요 금리, 스프레드, 투자성과 순







자료: KIS, 금융투자협회, 삼성증권

과거 금리 상승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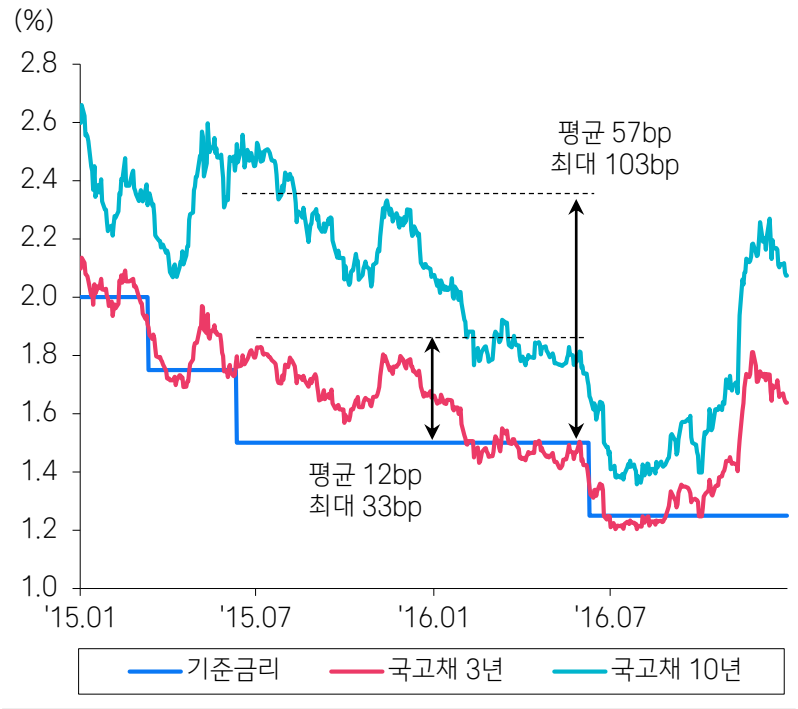
금리인하가 멈추고 동결기간이 길어지면 충분한 금리 상승 기간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

- 기준금리 대비 국고 10년물은 100bp 수준까지 확대 가능성. '13년은 Fed의 QT 선언과 겹치며, 최대 126bp까지 확대(Taper tantrum)

2013~2014년 사례

자료: 금융투자협회, 삼성증권

2015~2016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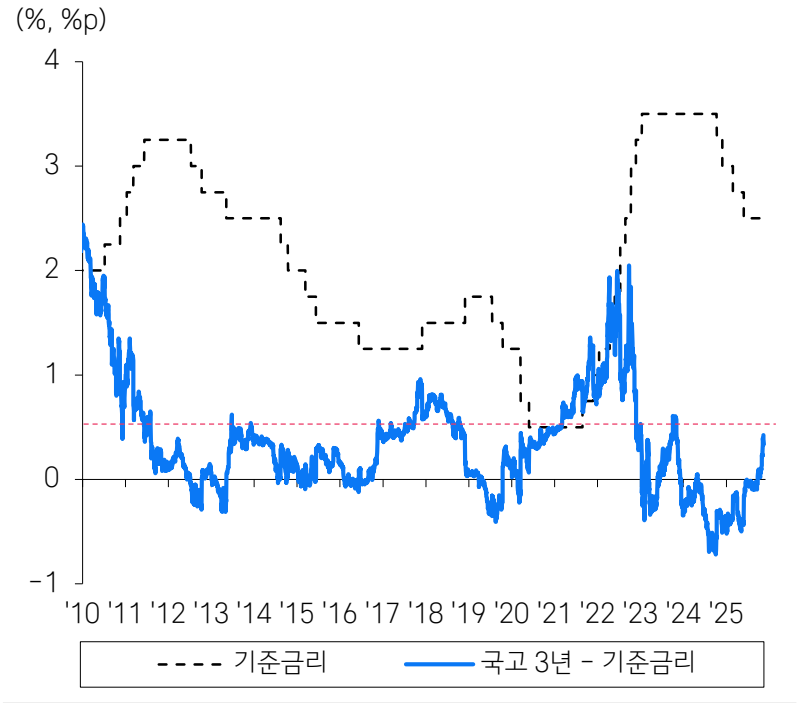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삼성증권

금리 판단의 기준점은?

기준금리 대비 3년물과 10년물 각각 50bp 100bp가 기준점. 북클로징 기간 중 오버슈팅 가능성은 열려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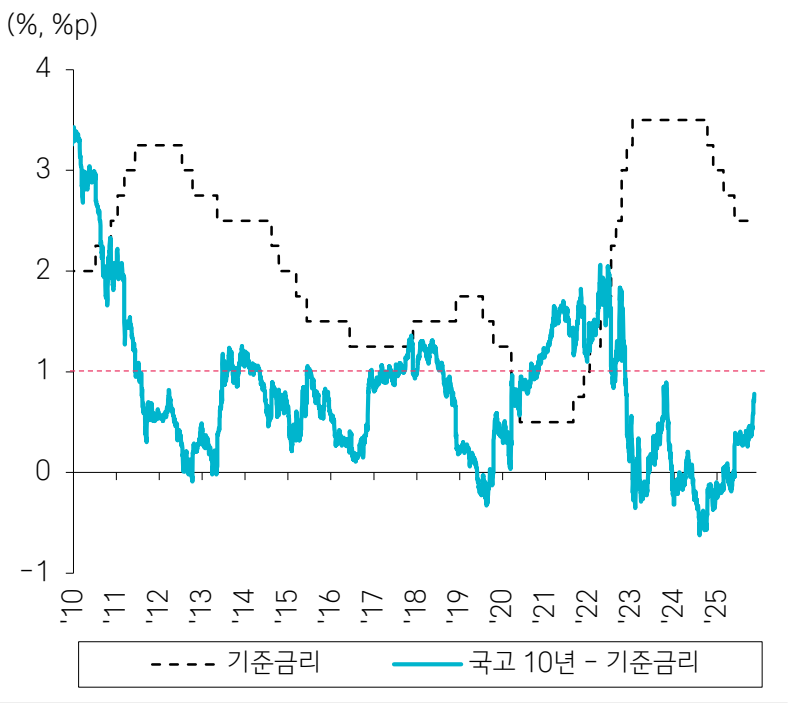
- '기준금리 인상기'로의 전환이 아니라면 동 스프레드가 기준점으로 작용한 다수의 사례 확인 가능

국고 3년 – 기준금리, 기준점은 50bp



자료: 금융투자협회, 삼성증권

국고 10년 – 기준금리, 기준점은 100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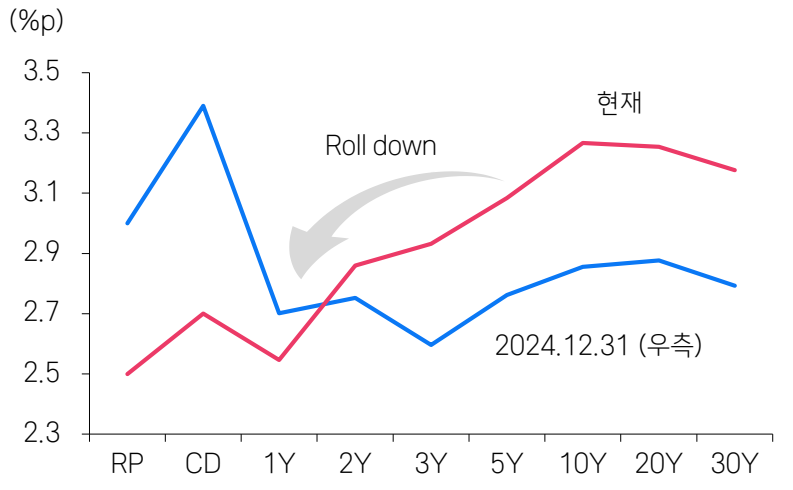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삼성증권

결론: 금리는 인하기 종료 Pricing 중. 당장은 Carry & Roll Down에 집중

당장은 정상화된 수익률 곡선에서 Carry & Roll Down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

- 금리가 충분히 상승한 이후에는 장기채도 고려해 볼만할 것이나 변동성이 커진 채권시장 현재는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
- 2026년 예상 범위: 국고채 3년 2.70~3.20%, 국고채 10년 2.90~3.60%

정상화된 수익률 곡선, 5년 이하 영역 Roll down에 집중해야



자료: 금융투자협회, 삼성증권

전망의 리스크요인

	구분	내용
금리 상방요인	추경 및 국채발행	'26년 발행은 232조원. 추경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가능성 열려 있음
	Wealth effect	주식시장 강세로 인한 소비 증가 및 인플레이션 자극
금리 하방요인	외국인 유입 가속화	WGBI 포함 자금유입 규모가 기대 이상으로 커지는 경우
	무역 불확실성 재확산	무역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지면서 수출 우려가 다시 커지는 경우
기타		한은 총재 연임 여부 또는 차기 총재 불확실 (이창용 총재 임기는 '26.4.20까지)

자료: 삼성증권

PART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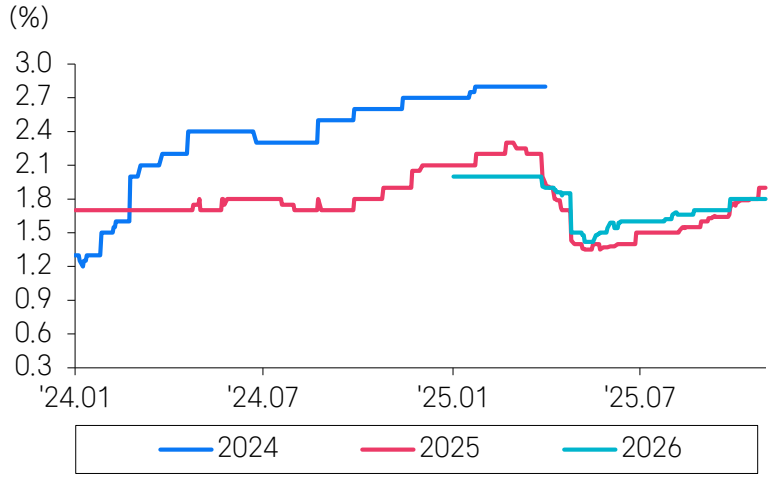
미국 채권시장

미국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 지속

미국에 대해 침체가 예상되지 않고, 물가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작용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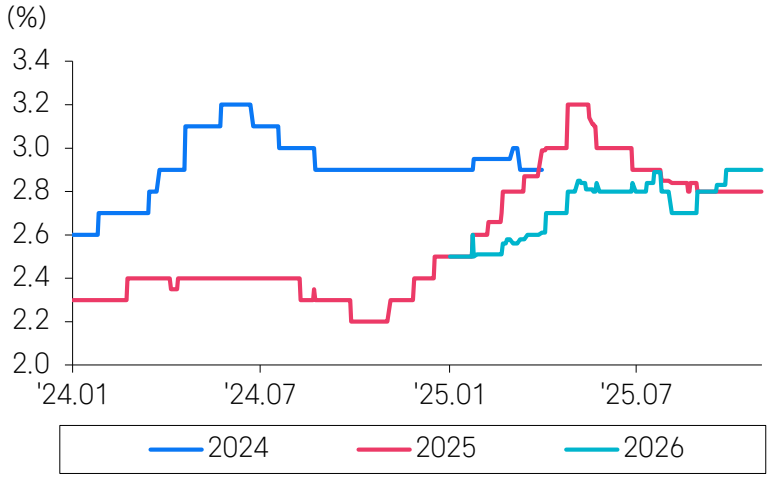
- 미국의 '26년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당사 매크로팀은 '26년 미국 성장률을 1.9%로 전망)
- 미국 인플레이션 전망은 4월 관세 이슈로 급등한 이후 지속 하락. '26년 전망치의 경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25년 전망치를 넘어선 상황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 변화 추이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미국 인플레이션 전망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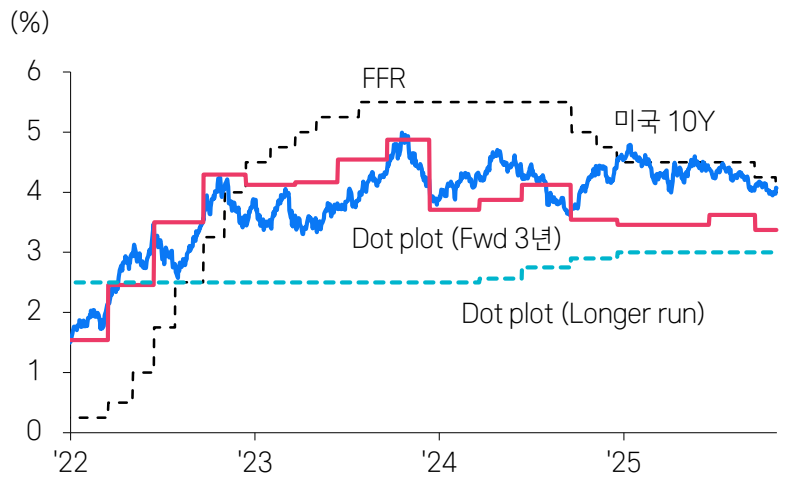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Fed의 금리인하 및 QT종료로 미국에 대한 경기 우려는 더 낮아질 전망

미국 기준금리는 오는 12월, '26년 3월과 6월 인하 예상. 12월 QT종료 예정으로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 완충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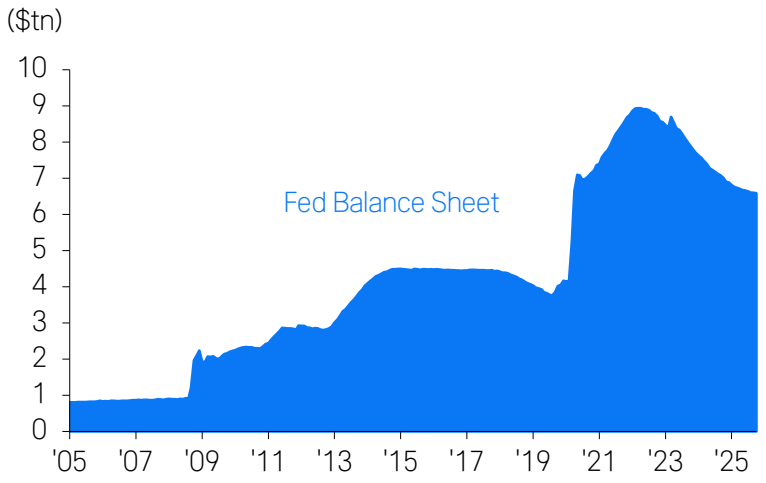
- Fed는 물가 우려를 자극하지 않는 완만한 금리인하를 이어갈 것. 기준금리 인하는 주요 금리의 상단을 낮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연준의 QT의 종료는 단기 금융 시장의 우려를 낮추고 시장의 수급 부담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

Fed 기준금리 '26.6월 말 3.0~3.25%로 인하 전망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Fed, 레포금리 상승을 반영해 '12월 QT 종료 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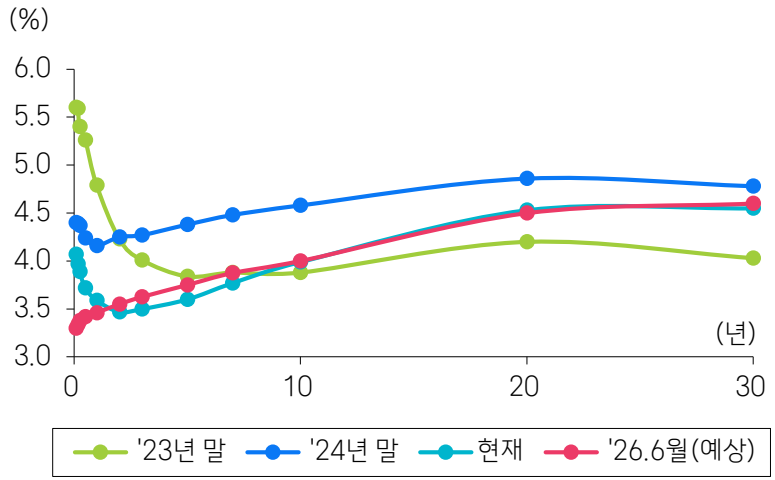
자료: Fed, 삼성증권

Term premium 확대되면서 수익률 곡선은 모든 구간에서 정상화 예상

금리 인하 기대를 대부분 선반영한 상황이 문제, 미국채 금리 변동폭은 월 30bp 이상이므로 너무 낮지 않은 금리에서 사는 것이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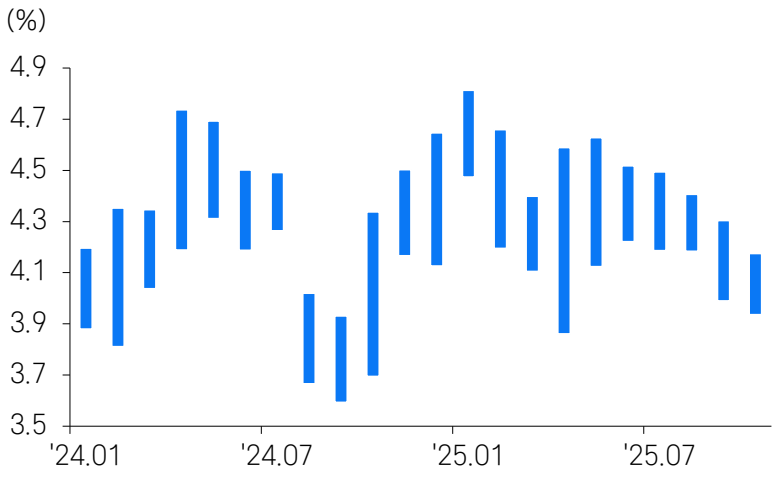
- 수익률곡선은 2년 구간까지 역전 폭을 확대하며, 금리인하 기대를 상당 폭 선반영 중이며, 기준금리 대비 미 국채 10년물 스프레드는 여전히 낮은 수준
-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는 낮아지고, 미국 재정에 대한 우려는 계속될 것이란 측면에서 텀 프리미엄(Term premium)은 정상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 2026년 미 국채 예상 범위: 2년물 3.00~3.80%, 10년물 3.70~4.40%

미국 수익률 곡선은 모든 구간에서 정상화 예상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미 국채 월별 변동 범위(10년물): 여전히 진폭이 큰 미국채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었습니다.

MEMO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s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